



## 경기도 김동연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라 도정 펼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권을 하게 돼 뜻 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도 장애돌봄주간으로 지정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선포, 장애

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초청 장애 연극 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민선8기 도정 정책을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 9,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5개년 계획 영상도 함께 상영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영상은 단순 정책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추진된 후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도 보여줬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발표, 축하공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범상/기자

## 전남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대표기업 육성

‘잡재·스타·선도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30일까지 모집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2024년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전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세워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잡재기업 → 스타기업 → 선도기업’으로 분류하고 총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잡재기업은 창업 3~7년 된 기업이다. 기획 지원, 기술 이전,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육성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한다.

스타기업은 연매출 25억 원 이상 기업이다. 기술 진단, 기술 혁신,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 중점을 뒀 지원한다.

선도기업은 연매출 40억 원 이상 기업이다. 전남 프로젝트 관리자(PM) 매칭, 기업 협업전략,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남에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으로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등 전후방 연관 업종으로 4개 분야 142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별로 잡재기업 64개사, 스타기업 25개사, 선도기업 10개사, 주축산업 핵심품목 43개사 등이다.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연구개발(R&D) 완료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기업



업, 중소기업중앙회 선정 명문장수기업, 원산지인증수출차 등은 우대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문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전남도 기반산업과, 전남테크노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최신 기술 수요와 대내외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전라남도

## 2024년도 경북관광기념품공모전 대상에 ‘토우 이야기’ 선정

대상 ‘토우이야기’, 금상 ‘새천년의 숨결’사식함’ 등 수상작 22점 선정



경상북도는 경북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제27회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 작품 22점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해, 총 103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경북도는 각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결과,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5점 등 총 22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 경주에 있는 경상북도 관광홍보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투표를 진행해 심사에 반영시켰다.

대상은 경상북도 영천시 송영철, 성원숙(오울도예연구소)씨의 ‘토우이야기’로 신라시대 토우를 활용해 오르골, 함, 머그잔으로 제작됐다.

기마인물형, 동물형 등의 다양한 토우가 축소 정밀하게 조각되어 정교함과 심미성을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일반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컵이나 함 등으로 제작되어 실용성도 챙겼다는 평

가를 받았다.

금상에는 신라시대의 토기를 현대의 푸드커버에 응용하여 제작한 문경시 이기호(황제요) 씨의 ‘새천년의 숨결’사식함’이 차지했다.

은상은 울산광역시 신동환(칠보 공방) 씨의 ‘비단벌레와 자개의 만남’, 대구광역시 김진구(문화공간라온) 씨의 ‘얼쭈 미니 가야금’이 선정됐다.

동상으로 부산광역시 김정예(착한세상) 씨의 ‘경복와봄’과 경주시 최동혁(하우스오브초이) 씨의 ‘소금 모나카 아이스크림’, 전라북도 이재호(개인) 씨의 ‘경북 사과를 담다’가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의 수상 작품집을 제작하고, 문화 산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수상업체들의 직접적인 판로와 홍보를 지원한다.

선정된 작품들은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각 200만원, 동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70만원, 입선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기념품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에서의 추억을 상기시켜 그 여행지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며, “이번 제27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발굴한 관광기념품의 육성을 통해 경북의 매력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 가치를 창출하여 경북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 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경상북도

주최 영양군

주관 UFTF 영양특산물관장재단

# 경상북도의회, 2024년도 청소년의회교실 본격 시동

## 4.17일 경산 무학고등학교 첫 시작, 올해 총 25개 학교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2024년도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4월 17일 경산 무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산 무학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한철 의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

회의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도농 간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 의대생 장학금 제도” 및 “교육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청소년 보호 센터 추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상 우유급식에 관한 조

안”, “학교 학급 무선 청소기 배치에 관한 건의안”,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를 위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학생들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학교·사회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며 열린 찬·반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과정까지 참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위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에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함께 의견을 나누며, 토론과 전자투표를 해보는 경험을 통해 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실제로 의원 역할을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에 처음 도입하여 그동안 도내 68개 학교, 3,850여 명이 체험했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금년도에는 경산 무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봉화 춘양초등학교, 포항 대흥초등학교, 상주고등학교 등 25개 학교, 700여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해 20개 학교(544명)에서 25개 학교로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회교실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는 95.4%, 민주시민 역량에 도움을 준다는 88.5%, 프로그램이 유익하다는 92% 등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배한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큰 꿈을 펼칠 수 있게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생태도시 순천, 마약 등 주요 중독 청정도시 도약 기반 마련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재관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예방사업 및 치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예방사업으로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중독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해 치료지원사업으로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자의 사재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독질환자 퇴원 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재관리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자뿐만 아니라 중독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세은 의원은 “마약류를 포함한 주요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과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큰 사회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게 힘이 되고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세은 의원은 지난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순천시에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원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이승준/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공유재산 현장 방문점검으로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 물양장 확충사업지·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지·부산박물관 등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 김형철 의원, 김태호 의원, 반선호 의원, 배영숙 의원, 황석철 의원)는 제320회 임시회 공유재산 안전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먼저 ▲ 부산공동어시장 인근의 계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양장 확충 사업지를 방문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이어 유망한 기업과 젊은 인재들을 유치해 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

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 마지막으로 부산박물관을 방문해 어린이 박물관 증축을 포함한 박물관 체험 공간 조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방형 광장 및 주차장 확충에 대한 계획을 확인했다.

김광명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희태/기자



#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최

##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임시회 열어 민생 챙겨



대구시의회가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민생안 5건 등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

본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4월 22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23일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대구컨벤

션뷰로의 통폐합 과정에 드러난 대구시의 만연한 위법성과 오만함(육정미 의원, 비례),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 중단 촉구(육정미 의원, 비례) 등 시정질문과 데이터 산업으로 대구의 미래를 키우자(하병문 의원, 북구4), 성당 자용차학원과 감삼우방드림시티 구간 미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등 2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장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장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4월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를 열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0조 5,872억 원보다 4.95%(5,237억 원) 증액된 11조 1,109억 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주요 증액된 보전·복지 분야(1,91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1,13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593억 원), 교육 분야(604억 원)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5월 2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봉화군의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봉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심도 깊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또, 이번에 상정된 2024년도 제1

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5,400억 원) 대비 870억 원이 증가한 6,270억 원으로 주민 복리 및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수정 가결했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김상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임시회의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일/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돌봄봉사 '반짝 반짝 빛나게 해드립니다~' 희망 전해

## 복지 사각지역 해소 위해 더 많은 사회단체와 탄탄한 복지협력체계 구축 필요!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4월 18일 나주시가 주최하고 지역사회봉사협의체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돌봄봉사단'과 함께 봉황면 인음마을회관 일원에서 '반짝 반짝 빛나게 해드립니다~'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희망을 전했다.

찾아가는 돌봄봉사단은 봉황면 특화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 총 6회에 걸쳐 65세 이상 돌봄이 필

요한 어르신 가정을 찾아 봉사할 예정이다.

이날 활동은 ▲주방 칼갈이 ▲이불빨래 ▲방충망·전등 교체 ▲이·미용 ▲건강 체크 ▲화재경보기 설치 등을 지원했으며 특히 어르신과 한술을 들며 안부를 물었다.

참여에는 최명수 의원을 비롯한 봉황면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협의회, 부녀회, 나주소방서, 나주시노인복지관, 동행노인보호센

터, 쓰이살롱미용실 등도 함께 참여해 봉황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손을 잡았다.

최명수 의원은 “'찾아가는 돌봄봉사단'이 지난해에도 전남도와 나주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력을 다해 활동해 주셔서 많은 봉사단체의 모범이 됐다”며

“올해는 더 많은 사회단체와 복지협력체계를 더 탄탄하게 구축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많은 주민이 참

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지역의 복지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자치단체와 협력할 때 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희망할 수 있다”며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리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 “2024 신(新) 경세유표” 기획의경기 강진순례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은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20.1.13. 제정)에 의거하여 경기실학(京畿實學)의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2024 신(新) 경세유표 기획의경기 강진순례”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서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만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6일까지며, 최종 참가자 발표는 5월 17일에 있을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다산 관련 유적 답사, 실학 특강, 산책길 걷기, 다산박물관 관람, 실학 포럼, 참가자 교류행사, 다도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다.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은 “이번 행사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을 돌아보고, 현대 사회문제의 실학적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문제의 실학적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문제의 실학적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며 경기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참가 신청은 실학박물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QR코드 혹은 실학박물관 누리집(silhak.ggcf.kr) 공지사항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

“우리의 이웃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분당소방서에서 개최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김은혜 당선인과 함께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1년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기념식은 의용소방대원의 의료용 용기와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분당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80명, 내빈 및 소방 공무원 50명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대해 감

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는 5개 대 13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황진희 의원 “경기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근거 마련”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4월 17일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

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 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DMZ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이 센터는 도시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가 산재해 있다”며, “DMZ 관련 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DMZ의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내외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 박재용 경기도의원, 여주 이포보 일대 장애인 체육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장애인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재훈 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체육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여주 이포보 일대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주제로, 체육인들이 각종 대회 및 훈련 장소로 사용하는 이포보 일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특히 장애인 화장실과 샤워실 부족 문제, 코스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여주 이포보와 캠핑장 일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고, 사이클 경기장 일부 구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살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재훈 부위원장은 “여주 이포보와 캠핑장 일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인들이 대화와 훈련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건강한

정담회에 참석한 안양시 장애인 인권센터 최승민 대표와 사람연대 안양시지부 이혜진 지부장은 이포보 캠핑장 인근 체육시설에 장애인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장애인이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사이클 경기장 일부 구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개선해 장애인 체육인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개선과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주 이포보 일대 체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안양시 장애인 인권센터 최승민 대표, 사단법인 사람연대 안양시지부 이혜진 지부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 허범행 경영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김범상/기자

# 광주시, 식생활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건강한 식생활 보급을 위한 제12기 식생활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광주시가 건강한 식생활 보급을 위한 식생활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시는 사단법인 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가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12기 식생활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식생활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12기 교육은 5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15주간 매주 화요일에 열리며, 자녀의 편식 개선, 건강한 식습관 형성 등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 유익하고 건강한 자연 요리를

체험해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광주시민은 사단법인 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 사무실 방문 접수, 또는 전화 접수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 이천시, 지구의 날 기념 제16회 기후변화주간(4.22.~4.28.) 행사 안내

이천시는 '제54주년 지구의 날(4.22.)'을 맞아 1주일(4.22.~ 4.28.)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간 전국 소등행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물을 소등할 계획이며, 기업 및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제 16 회 기 후 변 화 주 간 (4.22.~4.28.)에는 소등행사 외 공유자전거 무료이용 행사(▲일

시:4.23.~4.28. ▲이용료:1,2인용 무료, 그 외 50% 감면, 추가요금 본인 부담 ▲장소:북하천,신둔천 자연 거대여수)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일회용품 줄이GO!, 다회용품 늘리GO!)캠페인을(▲일시:4.22.~ 예산산전시 까지.) 진행하며 참여방법은 이천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 학교 50학급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일시:4.24.~6.28)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문제

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음 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 경청하겠다"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청년 참여기구 연합발대식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청소년·청년들의 꿈을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2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개최한 '2024년 청소년·청년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한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청년 참여기구가 청소년과 청년들의 생각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란다"며 "좋은 정책·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SYF. 합성 Again, 2024'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발대식에는 재단 소속 41개 참여기구에서 청소년·청년 500여 명이 참여해 2024년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2023년 5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발대식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희망·성장 플랫폼으로서

재단의 모습을 보여줬다.

국악연희단 '하랑'의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위촉·인준장 수여, 이재준 시장 격려사, 김기정 수원시장의 의정축사, 영상 터치 퍼포먼스, 청소년뮤지컬단 공연 등 청소년과 청년의 활동을 응원하고, 열정을 뜨겁게 달구는 행사로 이뤄졌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참여기구·동아리 연합 발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정책 제안 ▲문화예술 ▲스포츠 ▲자원봉사 등 기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교통거점 구축해 주요 관광지 연결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 선정...국비 3억 4500만원 확보

용인특례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국비지원금에 시 예산 3억 4500만원을 더해 총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유명 관광지인 한국민속촌과 기흥역, 상갈역 등 교통 거점을 연계한 '관광형 DRT'를 도입한다.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수요응답형 교통수단)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운행구역과 관광지 소개와 행사 정보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며, '한국관광공사 1330 관광통역 서비스'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DRT 사업'에서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 지역 내 관광지과 교통 거점 사이 운행 구역을 최적화해 대기시간 감소와 편리한 환승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흥역을 중심으로 민속촌과 에버랜드 등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거점과 관광지 연결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 모빌리티 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3개월 동안 한국관광공사와 컨설팅을 통해 운행 시간, 운행 대수, 정류장 선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관광 DRT 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내 수준 높은 관광지와 교통수단을 연결해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첨단 모빌리티 교통수단을 관광에 도입해 편리한 이동 수단의 다양성 확보와 관광자원 활용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성남시 '숲속 힐링' 무료 산림복지 프로그램 2100회 운영

## 산성유원지, 청계산 등에서 유아숲 체험, 산림치유, 숲 해설

성남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산성유원지, 청계산 등 지역 내 5곳 자연녹지 공간에서 유아 숲 체험, 산림치유, 숲 해설 등의 프로그램을 총 2100회(회당 15~20명)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도심 숲속에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무료로 운영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다.

유아 숲 체험은 산성·판교·위례 공원에서 진행된다. 꽃, 연못, 땅속 생물 관찰하기, 흙 놀이 등 숲에 있는 자연물을 놀잇감으로 하는 수업이 열린다. 유아숲지도사(한 곳당 2명)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 단위, 유치원 등 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1000회 운영한다.

산림치유는 산성유원지 치유의 숲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별로 청소년은 '피톤치드를 마시자', 성인은 노르

딕 워킹, 노년기는 향토화·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3명)가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풀도록 도와준다. 총 400회 운영한다.

숲 해설은 남한산성, 청계산 등 선 택한 장소에서 숲의 아름다움·자연 자원·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하는 산림 교육 활동이 이뤄진다. 대상자별로 초등 학생은 '씨앗 캡슐 심기', 중학생은 '숲은 나의 친구', 성인은 '마음이 즐거워' 등의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다. 숲 해설가(2명)가 각 장소에서 자연 체험 수업을 진행한다. 총 700회 운영한다.

각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성남산림복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3개 분야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2480회 운영해 2만4353명이 참여했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자생화 전시회 '봄의 향연' 개최

## 가족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는 우리꽃식물원 자생화 전시회 '봄의 향연'

화성시가 팔탄면 소재 우리꽃식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자생화 전시회 '봄의 향연'을 연다.

우리꽃식물원 한옥 유리온실 앞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봄봄!! 화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II급에 속하는 날개하늘나리, 매화마름, 섬개야광나무를 포함한 100여 점의 자생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달 27일과 28일, 내달 4일부터 6일까지는 전통 민요(팔탄민요), 판페라, 화성시문화재단 '찾아가는 공연장' 공연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우리꽃식물원에서는 다음달 19일까지 초대작가 'TEAM BOTTA'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의 아름다움

을 자연물과 현대미술기법을 접목해 표현한 세계질관 특별 기획전시 '봄의 여행'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화성특례시로 나아가는 100만 화성시민의 지역 자부심을 고취하고 관람객들에게 우리꽃식물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우리꽃식물원 개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서남부권 대표 관광 명소로서 발전시키고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인 '보타닉가든 화성'을 단계별로 추진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은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존, 관리해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멸종 위기 식물 22종을 포함해 1,2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2024년 우리꽃식물원 자생화 전시회

봄의 향연

화성시 팔탄면 3.1 만세로 777-17 (우리꽃식물원)

2024. 4. 27.[Sat] ~ 2024. 5. 26.[Sun]

구분	장소	4.27(토)	4.28(일)	5.4(토)	5.5(일)
민요공연	자생화 전시	10:00~12:00	10:00~12:00	10:00~12:00	10:00~12:00
민요공연	자생화 전시	13:00~15:00	13:00~15:00	13:00~15:00	13:00~15:00
민요공연	자생화 전시	16:00~18:00	16:00~18:00	16:00~18:00	16:00~18:00
민요공연	자생화 전시	19:00~21:00	19:00~21:00	19:00~21:00	19:00~21:00

주요 행사 안내

전시·공연 자생화 전시, 세계질관 특별 기획전시(봄의 여행), 문화공연 등

부대 행사 요술공연, 페이스 페인팅 등

문의: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화성시 191-2100)

### 여주시 2024년 제3차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여주시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19일 2024년 제3차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위원 17명이 참석해 가운데 2024년 1분기 가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실적 보고와 2분기 신규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2024년 1분기에는 '설 정(情) 나눔 꾸러미', '출생지원', '위기탈출 안전한 가(家)', '아이랑 우유', '똑딱 수리단' 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2분기 회의에서 독거노인 반찬제공 서비스 '사랑나눔 찬찬찬(餐餐餐)' 사업, 저소득 가구에 냉·난방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원하고 따뜻한 가남나기' 사업 등을 추가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체제 구축에 더욱 힘을 예정했다.

김동식 민간위원장은 "지난 1분기에



는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며 "2분기에는 신규사업까지 더해져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점차적으로 줄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복환 가남읍장은 "언제나 지역사회

김병상/기자

### 아동이 행복한 하남시, 5월 4일 어린이날 대축제 개최

도심 속 하남시민의 숨과 심이 있는 하남시청 잔디광장에서 어린이날 1부 행사 진행



회하남애들아날추진위원회 주최 및 하남시 후원인 2부 행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부 장소를 보면 원도심에선 하남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되며 미사권역에선 미사호수공원·하남시장애인복지관·하남시청소년수련관·미사경정공원에서 행사가 열린다. 감일과 미사권역에선 감일문화공원과 위례5호공원(위례도서관)에서 각각 행사가 개최된다.

1부 행사는 도심 속 하남시민의 숨과 심이 있는 하남시청 잔디광장에서 ▲기념식 ▲하남시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아동권리헌장 낭독 ▲표창장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2부는 하남시청 및 권역별 장소에서 ▲마술쇼 ▲버블쇼 ▲어린이버스킹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전통놀이체험 ▲만들기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한강을 조망하며 맨발로 걸을 수 있어 최근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떠오른 미사 한강모랫길 등을 비롯한 지역 내 맨발 걷기길에서 어린이와 함께 걷는 사진을 촬영해 제시하면, 권역별 50명의 어린이

김병상/기자

### 인천시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 17년 만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22일, 실시계획인가...2007년 지정 제안 이후 토지구 간 갈등으로 장기 미추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4월 22일(월) 고시했다.

사업 면적은 128,185㎡로 1구역(97,932㎡,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2구역(30,253㎡,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부지조성,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등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제안됐으나, 토지 소유자 간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토

지 소유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 2022년 7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최초 도시개발사업구역 제안 이후 17년 만에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사업구역은 나지(裸地)와 빈집(34채)으로 방치돼 주민들의 안전, 도시경관 저해 및 범죄 발생 우려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개발로 주변 도로도 개통되지 않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독배로 구간 확장(30m→50m), 단절된 용정공원로 83번길이 연결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개발사업 이후 공동주택 및 상상복합(총 1,619세대)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장은 "방치돼 있던 지역을 정비해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 완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약 265만㎡ 중 60만㎡(22%)가 완료됐고, 현재 177만㎡(67%)가 추진 중이며, 잔여 30만㎡(11%)는 향후 민간 제안 등에 따라 추진 될 예정이다.

김중남/기자



### BBC는 왜 '고양'을 주목했나

BBC,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고양시' 소개

고양특례시가 영국 방송공사 BBC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소개된 사실이 알려지며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BBC는 지난 2일 스웨덴 예테보리, 노르웨이 오슬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프랑스 보르도와 함께 대한민국 고양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 관광도시로 소개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세계 14위,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협의체(GDSM)는 매년 환경·사회·마이스 인프라·도시마케팅 전담조직 총 4개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도시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백만이 넘는 대도시이자 녹지, 하천, 습지가 총면적의 50% 이상으로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인 도시"라며 "앞으로도 고양시만의 지역특색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갖춘 미래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반시설, 광역교통망 등 미래경쟁력 확보해 자족도시로

고양시는 도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 전역에 바이오, 방송영상산업, 드론산업 등 4차산업을 이끌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구상 중이고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일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있다.

기업유치 자족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래수요에 대비해 광역교통망도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안산 원시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이 개통했고 하반기에는 교외선과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GTX-A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창릉신도시 교통을 책임질 고양은평선도 개통을 준비 중이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정반아 한강하구 습지 보호구역 중 유일하게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다. 시 곳곳에는 272개소의 공원이 있고 2035년까지 1인당 체감 공원녹지면적은 13㎡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탄소 흡수원인 도시공원과 도시숲도 확충하고 있다. 일산호수공원은 매년 대한민국 대표 화훼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 고양시 대표 명소다.

그린네트워크 뿐 아니라 70개 하천, 한강 등 블루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북한산에서 시작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창릉천은 지난해 3200억 규모의 환경부 주관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돼 2032년까지 치수·이수·생태·친수 분야에 걸쳐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 산업기반시설, 광역교통망 등 미래경쟁력 확보해 자족도시로

고양시는 도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 전역에 바이오, 방송영상산업, 드론산업 등 4차산업을 이끌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구상 중이고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일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있다.

기업유치 자족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래수요에 대비해 광역교통망도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안산 원시까지 이어지는 서해선이 개통했고 하반기에는 교외선과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GTX-A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창릉신도시 교통을 책임질 고양은평선도 개통을 준비 중이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일산,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주민맞춤형 재건축도 준비 중이다. 또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해 내구성과 경관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하고 경계선 턱 낮춤 등 보행약자까지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도정비에 적용하고 있다. 시민들이 쉽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431km에 이르는 자전거

한영기/기자



# 전남도, 산·강·공원 등 국가지점번호판 정비로 안전 강화

## 22일부터 시군·한전·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전라남도는 봄철을 맞아 도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산과 들, 강, 해안가, 공원 등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시군, 한전,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2일부터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민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인명피해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빈도가 높은 등산로, 방파제, 수문, 철타 등 부어한다. 9천36개가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3천623개는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5천413개는 한전, 국립공원공단,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한다.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이 오염이나 탈색 등으로 훼손된 경우 설치기관과 협의해 정비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을 최대 10km에서 최소 10m까지 격자방식으로 나눠 각 지점마다 한글

2자, 숫자 8자리를 조합해 10자리로 표기한다. 지점번호판은 정밀 측량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다. 소방이나 경찰의 긴급 출동 시 위치

확인에 도움을 준다.

봄철 산행 중 산악사고 발생 시 주변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신고가 어려울 경우 인근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통해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를 구조대원이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국가지점번호를 모를 경우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에 대한 지점번호를 조회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 참여마당에서도 국가지점번호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순천시, 'SDGs와 ESG 토크아보기' 초청 강연회 개최

## 지속가능한 도시의 방향과 SDGs와 ESG 지방 정부의 역할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 주관으로 오는 22일 14시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SDGs와 ESG 토크아보기'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방향, SDGs와 ESG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주대학교 SDGs-ESG 연구센터장인 이창언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9월 25일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ESG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이다.

송경환 상임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해서 공공·민간부문에서 SDGs와 ESG 경영의 개념이 확산되어 좋은 도시 모델을 만드는 지방 정부의 종합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이창언 교수 초청 강연회]

지속가능한 도시의 방향

# SDGs & ESG 토크아보기

2024.4.22.(월) 14시 / 순천시청 대회의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uncheon Council Sustainable Development

# 나주시, 민·관 사례관리 수행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 스트레스 대처 능력, 의사소통 기술 등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영강동 어울림센터에서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소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 상담이 많은 사례관리 실무자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야기&드라마 치료' 지경주 연구소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감성노동과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료를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스킬을 배울 수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실무 담당자는 “그동안 대상자 상담과 복지업무 수행하는데 쌓인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복수 나주시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이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남원시, 전북특별법 2단계 특례 발굴 매진

## 인구감소대응 등 통합형 아젠다 2단계 특례 39건 발굴



남원시는 22일 9시 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식 시장 주재로 전북특별법 2단계 특례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예에 이어 올 하반기 추가 특례를 반영하는 전북특별

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에 꼭 필요한 남원형 특례 39건을 발굴하고 도와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반영이 어려운 개별 특례보다는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 등 인구감소 대응 특례, △외국인 고등학생 유치 등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 특례, △노후관광지 재생 등 문화관광 활성화 특례, △드론 레저산업 기반 마련 특례 등 지역의 현안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통합형 아젠다 특례 위주로 발굴하여 개정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도와 부처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하고, 시민

과의 현장 소통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는 등 민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재정지원이 가능한 특례를 중심으로 36개 대상을 확정하여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계획을 마련하며 실행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원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과 실행이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을 실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실행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남출/기자

# 진도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진도군만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통한 핵심전략과 실행과제 제시



진도군이 지난 19일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진도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진도군 먹거리와 관계시장의 현황 분석을 통해 기획생산, 접근성,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먹거리 체계 구축에 따른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문제 반영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농가 소득 안정과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진도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8대 추진전략과 20개의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진도군 지역먹거리계획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군은 맞춤형 먹거리 생산·공급,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군민을 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진도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은 소규모 농여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실행전략이 중요하다”며 “진도만의 먹거리계획을 수립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함평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인증 사업자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이 함평군엑스포공원 주재영 상관에서 친환경농업인 5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인증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5일과 17일 2회에 걸쳐 열린 이번 교육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잔류농약 검출과 농약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등으로 매년 친환경 인증 취소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 관련 의식을 고양하고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 의무교육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교육에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대책으로 친환경 재배 시 농약 사용 금지, 공동방제 사전신고 및 단지대표 임의 의무, 공공비축미 친환경경매 매입 전 잔류농약검사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군의 친환경인증면적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군에서는 친환경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에 생산장려금으로 ▲벼, 유기농은 ha당 1,000천 원, 무농약 ha당 500천 원 ▲채소, 유기농은 ha당 1,600천 원, 무농약 ha당 1,000천 원 ▲과수, 유기농은 ha당 1,800천 원, 무농약 ha당 1,200천 원 ▲식량작물, 유기농은 ha당 1,500천 원, 무농약 ha당 900천 원 ▲임산물, 유기농은 ha당 800천 원, 무농약 ha당 400천 원 ▲기타, 유기농은 ha당 500천 원, 무농약 ha당 300천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완도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성료, 청산완보(氣) 치유 인기

주말에만 2만 2천여 명 방문, 유채꽃 활짝 핀 청산도의 봄 만끽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완도 청산도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총 3만 3천여 명이 다녀가며 막을 내렸다.

특히 축제 기간 주말에는 총 2만 2천여 명이 방문해 완도항 및 청산도 주요 관광지가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했다.

올해 축제는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 완보'에는 1,937여 명이 참여해 슬로길을 걸으며 유채꽃이 활짝 핀 청산도의 봄을 만끽했다.

강한 자성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 불리는 청산도 보적산 범바위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기(氣) 치유' 프로그램에는 250명, 은하수 출사를 떠나는 '별이 빛나는 청산도'에는 60여 명이 함께했다.

군은 범바위 기(氣)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 해조류, 허브 맥반석, 소리, 향기 치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산 해양치유공원을 찾는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다.

축제는 끝났지만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평일)해주는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협조 덕분에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는 슬로시티 청산도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산도는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돌담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됐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 하여 붙여진 '슬로길'은 전체 11코스, 42.195km에 이르며,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됐다.

양영울/기자



## 전북도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애환을 넘어 새로운 가족으로!

전북자치도 거주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20일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이북5도 전북사무소가 주관해서 도내에 거주하는 11쌍의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가족결연행사가 개최됐다.

가족결연사업은 남한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도민과 가족결연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은 약 13만명으로 주로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에 원적을 두고 있는 실형인 1세~4세대이다.

북한이탈주민과는 실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로의 애환을 나누며 평소에도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가족결연을 토대로 전북자치도와 이북5도 전북자치도사무소는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간 영호남 친선교류 행사, 합동 대령기 체육대회 참가, 통일염원 고향만남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가족결연 행사와 더불어 이북도민 사회와 화합증진에 기여한 공로자 6명에 대한 함경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식도 진행됐다.

함경북도명예도민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새롭게 가족의 연을 맺은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족결연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어느 곳에 있든 우리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며, "통일의 그날까지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은 "가족결연을 통해 실형의 아픔과 애환을 딛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며, "통일의 그날까지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북5도위원회 산하기관인 이북5도전북사무소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41쌍, 82명의 결연가족을 이루었다.

이남출/기자

## 강진군 "다산학생수련원, 전남인재개발원 유치 효과 두 배 이상"

전남도교육청-강진군, 건립 위한 업무협약식 가제



강진군이 지난 2015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전남인재개발원 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매머드급 학생수련시설이 강진에 들어선다.

강진군은 전라남도교육청과 강진군신전면 별정리 일원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8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체결했다.

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은 지난 2022년 강진원 강진군수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게 건의한 사업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이 숨 쉬

고 있는 강진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수련 활동을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현장교육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강진군에서 부지를 제공한다.

지난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강진원 군수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2023년 TF팀을 구성하고 글로벌 미래교육수련시설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478억원을 투입, 조성해 매년 1만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남인재개발원에 비해 다산학생수련원은

800억원을 투입하며 전남도내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민 등 연 3만여명이 최첨단 교육시설, 레저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생의 체류가 전남인재개발원 유치 이상의 직간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산학생수련원은 500명 동시 합숙이 가능한 생활관과 다목적 교육관, 생존수영 및 해상안전체험장 등 주요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련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교육비 특별회계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문답과 토론 교육을 실현하고 협력을 통해 집단 지성을 만들어 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미래 교육을 위해 전남교육이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셨다"며 "그 실용 교육 정신을 받들고 가르침을 새겨 다산의 정신과 열이 깃든 강진에 다산학생수련원을 건립해 전남의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의 문화유산과 기반시설을 활용해 수련원 프로젝트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두 기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전남형 교육자치, 미래교육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강진군이 함께 할 것"이라며 "학부모와 지역민을 위한 다산학생수련원 시설 일부 개방 및 각종 공연 유치로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강진도 전남도교육청이 함께 원-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군은 전남의 지정학적인 교통의 중심지로 지리적 중심권인 중남부권역에 있다. 다산의 정신이 깃든 청림 현장교육의 산실로 2011년부터 전국 공직자 등 6만여 명이 다녀간 다산청림연수원과 본격 계도에 들어선 다산학생수련원, 청림을 기본 소양으로 하는 전남인재개발원 세 기관을 '대한민국 최고의 청림교육 벨트'로 묶어 명실상부 청림교육 메카로 조성한다.

여기에 더불어 관내 교육 전문가인 강진만 생태체험관과 학생푸스, 전남국제직업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중인 전남생명과학고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성지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추윤호/기자

## 보성군, 와이-팜 엑스포(Y-Farm Expo)2024 '스마트 귀농 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더불어살기 좋은 보성, 수요자 중심의 귀농 정책 적극 홍보

보성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연한 뉴스와 농업이 주최하는 2024 '스마트 귀농 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귀농 귀촌 유치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상담 전문관을 운영해 귀농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에게 귀농 귀촌과 관련된 종합 정보와 맞춤형 지원정책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했다.

특히, 귀농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지원사업 Q&A'를 제공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한 2024년 '정책 홍보 책자'를 상담에 활용했다.

또한, 보성군이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한 점과 쌀, 감자, 키위, 두릅, 쪽파, 녹차, 등 농산물을 재배 최적지인 점을 강조해 귀농 정책을 적극적 상담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신규농업인을 위해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을 비롯해 현장실습 교육, 재배 이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귀농인의 정착 지원에 맞는 농작물을 선택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 초기 정착과 귀농 계획 실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하고 귀농 귀촌인의 창업 및 주거확보를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청년 농인 농업창업, △귀농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용자), △귀농어 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원영/기자



## 광주광역시 복구, 33면 규모 '오치 공영주차장' 개장

22일 오전 11시 오치 공영주차장(오치동 969-3) 일대에서 개장식 열려

광주 복구(구청장 문인)가 오치동에 공영주차장(오치동 969-3번지 일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선의를 보인다고 밝혔다.

22일 복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오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최근 완료되어 개장식이 열렸다.

개장식은 22일 오전 11시 신규 조성된 오치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문인 복구구청장을 비롯해 인근 주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오치동과 인근 지역은 주택과 상가 밀집 등으로 주차 여건이 열악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주차 인프라 개선 건의 등 공영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이었다.

이에 복구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복구 사업 선정을 적극 건의했고 그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사업비 38억 원을 확보해 주차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23년 10월까지 사업부지 확보, 조성계획 수립, 공사설계 용역 등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끝내고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공영주차장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오치동에는 1005㎡ 부지면적에 '주차면 수 33면'을 갖춘 공영

주차장이 신설됐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가로등, CCTV, 주차 관제 시스템 등도 설치되어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복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복구구청장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 거쳐 추진한 이번 사업을 원활히 매듭짓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나눔 주차장, 썬지 주차장, 내 집 주차장 갖기 등 주차 공간 확보 정책을 적극 펼쳐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나눔 주차장' 사업에 학교, 공동주택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108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제공하는 등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협업 기반 주차장 공유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김병수/기자



# 경북도, 저출생·기후변화 대응에도 생활개선회가 앞장!

## 메탄 저감 기술 실천, 저출생 대응 국민의식 개선 활동 적극 노력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8일과 19일 청송읍연수원에서 도내 22개 시군 생활개선회 회장과 임원 75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 핵심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기후 온난화 등 현안 문제에 직면한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실천

가능한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스스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 영농작업 시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벼농사에서 벼가 자라는 기간 중 생육에 적합한 물관리(중간물떼기, 물걸러대기 등)로 메탄 배출을 줄이고, TMF 발효사로 이용을 통한 소의 메탄가스 발생 저감 기술 등을 실천할 것을 논의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22개 시군에 기배정된 도 특수사업인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결혼과 출생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김숙자 한국생활개선경북도연합회

장은 시군별 생활개선회의 주요활동계획을 공유하면서 2022년 말 기준으로 경북 도내 여성농업인 18만 7천 명 중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53%로 전국 평균(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 교육과 생활개선회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생활개선회가 1958년 조직된 이래 농업인과 농촌의 생활 개선, 주거환경, 농의소득원 발굴 등에 힘써 온 시군 생활개선회장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고령화와 저출생, 기후변화, 먹거리 불안정 등 직면한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생활개선 사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지자체 최초 글로벌 데이터 시장 진출의 발판 마련

## 대구시, 하노버메세 기업참여 및 유럽 GAIA-X 네트워크 확장 지원



대구광역시는 지역 혁신기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역기업 5개사와 하노버 산업박람회

하노버메세는 매년 4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산업기술 박람회로 1947년 개최 이래 2024년 77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산업 기술 전시회다. 6~10개의 전문 산업 전시가 동시에 개최되며 거의 모든 산업 기술을 총망라한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산업활성화 (Energizing a Sustainable Industry)'를 주제로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탄소중립 생산, 산업용 에너지, 수소 및 연료전지 등 다섯 분야의 글로벌 주요 산업 트렌드를 다룬 예정이다. AWS, MS, 지멘스 등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는 인터엑스, 이시스, 에이비에이치 등 5개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대구 공동관'을 조성하고 제조 AI 및 물류로봇 분야의 혁신기술을 선보이고 홍보할 예정이며,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와 공동 협력 예정인 유럽의 GAIA-X 생태계와의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NVIDIA 등 하노버메세 주요 참가기업을 방문해

올해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최 예정인 'FIX 2024(미래혁신기술 박람회)'를 알릴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2024 하노버메세 참여를 통해 산업 데이터의 유럽 GAIA-X 프로젝트와 연결 고리를 만들고 동시에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GAIA-X 아시아 데이터 생태계 거점기지 역할 수행을 목표로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이다.

최은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하노버메세 참가는 대구시의 산업 발전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견고한 위치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4인 4색 감성 보컬 부산 총출격! 2024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파크콘서트 출연진 공개

## 6.9. 18:30~20:30 화명생태공원에서 '비오에프(BOF) 파크콘서트' 개최... 자연과 음악에서 힐링하는 '6월의 소품'으로 마련돼

부산시는 2024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usan One Asia Festival, 이하 BOF)의 '파크콘서트'를 오는 6월 9일 오후 6시 30분에 화명생태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크콘서트'는 모든 세대가 함께 웃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자연과 음악에서 힐링할 수 있는 피크닉 형태의 음악 축제로 무료 관람이다.

이번 콘서트는 ▲멜로망스 ▲폴킴 ▲적재 ▲임한별 4인 4색 보컬의 음악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첫 번째 주자는 달콤한 노래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멜로망스(MeloMance, 김민석, 정동환)'로 '선물', '사랑인가봐' 등 뛰어난 라이브 실력과 작사, 작곡 능력을 겸비한 독보적인 실력과 대중성을 함께 갖춘 감성 듀오다.

두 번째 주자는 봄바람과 함께 설레는 음악으로 돌아온 '폴킴(Poul Kim)'으로, '너를 만나', '모든날 모든순간' 등 믿고 듣는 음원 강자이자 대세 음악가(뮤지션)로 이번 공연에서도 감미로운 보이스로 많은 관객과 호흡하며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세 번째 주자는 '별 보러 가자'로 단숨에 감성 싱어송라이터로 떠오른 '적재'가 무대에 오른다.

국내 대표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현란한 기타 연주와 함께 달콤한

보이스로 관객들을 몰입시킬 예정이다.

마지막 주자는 먼데이키즈 출신의 가수(보컬리스트) '임한별'로, 가창력 뛰어난 가수들과의 협업과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 오에스티(OST)로 그 존재감을 증명하며 '발성의 정석', '보컬 교과서'라 불리는 대세 가수(보컬리스트)다.

그 외에도 싱어송라이터 '픽보이'와 지역 음악가(뮤지션)도 참여해 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2024년 비오에프(BOF) 파크콘서트'는 낙조가 아름다운 낙동강 풍광을 배경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화명생태공원이라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시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BOF 공식 누리집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태/기자



멜로망스(MeloMance) (에이비컴퍼니 제공)



폴킴 (와이엑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적재 (에이비컴퍼니 제공)



임한별 (폴엑스엔 제공)

# 청송군, 대표축제 상생논의를 위한 자매결연도시 중국 숙천시 방문

## 중국주도숙천문화관광축제(中国酒都宿迁文化旅游节) 참석



청송군은 18일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청송군 대표단이 중국 자매결연도시인 숙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작년 8월 진중위 당시기를 비롯한 숙천시 대표단이 청송군을 방문한 데 이어 답방으로, 숙천시가 중국주도숙천문화관광축제에 청송군을 공식 초청해 이루어졌다.

중국 백주(白酒, 바이주)의 수도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청송군

대표단은 개막식에 앞서 상호 대표축제 교류 확대 등 다방면에 대하여 논의하여 협약식을 가졌으며, 그다음 19일 축제 개막식, 양해각서 체결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일정 이외에 서교국제농산물거래센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하이지사 방문 등을 통하여 청송 사과를 포함한 농특산품의 해외파로를

모색하고 수출입 현황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의 상호 대표축제가 한층 더 발전할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문화·경제·농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여 두 도시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고 함께 상생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나부터! 지금부터!"...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의지 선포

## 경주시, 전국 최초 민간 주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

경주시가 22일 '경주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주시 주최,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은 제54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열리면서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이날 선포식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포함해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400여 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구호제창을 통해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 앞장서겠다'는 경주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선포했다.

특히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탄소중립 약속 배지는 탄소중립 실천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배지를 착용한 한 시민들 대다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못할 수도 없는 전 세계적 과제로, 주요 선진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에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동참했다.

산업·에너지·교통 등 다양한 온실가

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이행주체인 경주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윤병록 경주시 미래전략실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전략수립 단계부터 시민의견 수렴, 시민실천운동과 민관산학의 협력체계 수립 등 경주시 탄소중립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발표한 17개 기관 단체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다짐은 경주시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큰 응원과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각자의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경주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경주시의 의지가 참석한 시민들에게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주시청 어린이집 원아들의 환경노래합창 기념공연은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윤태열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은 "환경오염과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따른 반성과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며 "경주시의 환경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실천함으로써 우리 경주부터 변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오늘 선포식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지구촌의 주인으로서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지구를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갈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ESG경영 모범도시 실천 로드맵 설정 △2050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추진 △경주형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 시행 △탄소중립 실천 추진 전략 구상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 ESG(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대상, 2024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 ESG 경영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태용/기자





# 경북도,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선정!

## 2024~2028, 5년간 국비 29억원 확보 (총사업비 50억원)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공모에 경원대학교가 선정돼 국비 29억원을 확보했다.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은 지역의 석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기술 수준에 맞는 특화 연구개발(R&D)로 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국에서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과제 '소재 분야 장비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Data·Network·AI) 융합형 연구 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 내 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와 경북 주력산업과 연계한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융합인재 양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5년간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을 중심으로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장비 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중견기업과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번 선정으로 본사업에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29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국비 29억, 지방비 6억, 민간 15억)이 투입되며, 경원대학교를 주관으로 지역 중견기업인 아주스틸(주)과(주)피엔티가 참여하고 경북도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지역 혁신기관이 지원한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석박사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인 연구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중견기업과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등 지역 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책의 향기에 물들다

## 공공도서관 20개 관 책 71만 권 보유, 안동시민 한 해 48만 권 읽어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도서관법을 개정해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기도 하다. 스페인의 '세인트 조지 축일'에서 유래한 이 날은 사랑하는 남자가 책과 장미꽃을 선물하는 풍속이었는데,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념일 제정은 독서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 읽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따뜻한 봄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독서를 하고 있을까?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로 성인 두 명 중 한 명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아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시간에 쫓기기도 하지만, 넘쳐나는 오락거리로 자칫 답답해 보이는 책 읽기를 꺼리는 분위기도 크게 한몫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태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민은 지난 한 해 관내 도서관에서 48만 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과 책이 많은 도시, 안동 한국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안동에는 공립 공공도서관 6개 관과 작은 도서관 14개 관이 있다.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특수목적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에 반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동 관내 공립 공공도서관은 안동시립도서관 3개 관으로 안동시립중앙도서관(옥동)과 웅부도서관(동문동), 어린이도서관(정하동)이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는 안동도서관(당북동), 용상분관(용상동), 풍산분관(풍산읍)이 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 3개 관과 사립 11개 관이 있는데, 도심지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도 위치해 공공도서관 이용이 힘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외에 안동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스마트도서관과 전자도서관, 숲속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내에서 상위권으로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독서 기반 조성이 잘 돼 있는 편이다.

안동 관내 20개 도서관의 소장도서 수는 2023년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 60만 권, 작은도서관 11만 권으로 총 71만여 권인데 안동시민 1인당 보유 권수로 환산하면 4.62권이다. 전년도에 4.43권이었던 것에 비해 0.2권이 증가했다.

또한 2022년도 국가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안동의 공공도서관 장서 수를 1인당 보유 권수로 환산하면 3.69권으로 경북이나 전국 통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안동 안동시민이 지난해 관내 도서관을 이용해 책을 대출한 수는 약 48만 권으로 시민 1인당 3.14권을 읽었는데, 2022년도 3.06권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안동시립도서관에서 약 30만 권을 대출했으며, 이는 2023년부터 두 배로 확대된 대출 권수와 모바일회원증 서비스 실시, 전국이 하나의 회원

증으로 대출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운영 등 시민이 좀 더 편리하게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연중무휴, 시간 제약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3개소에 스마트도서관, 6개소에 숲속도서관을 설치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PC나 핸드폰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해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 있다.

또한 시민의 도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안동시립도서관은 2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관내 교육청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학교 내 마을도서관 등에 1억 3천 9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편 시민의 독서 선호도를 보면, 연령과 관계없이 문학도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의 경우 자연과학, 역사, 사회과학 순, 청소년과 성인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순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립도서관 대출이용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40~50대, 초·중·고 학생, 20~30대, 영·유아와 60대 이상순으로 대부분 가족 단위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책 읽는 환경, 도서관이 만들어가다 시민이 책 읽기 좋은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도서관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서진진을 위해 각종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추진 중이며, 특히 안동시립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발맞춘 양질의 도서 확충을 위해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 도서 구입 시 반영하고 △도서관 상호대차와 장애인을 위한 도서 무료 택배서비스인 책바다와 책나래 서비스 △전국 협약도서관에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는 책이음과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서비스 △도서관 누리집 맞춤형 도서추천서비스 △출생과 더불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독서문화운동인 '북스타트 안동' 사업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협력사업인 '독서 포인트 서비스'와 '지역서점 스탬프투어 - 쌓고, 쓰고, 찍고' △사람이 책이 돼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휴먼라이브러리 사업 △독서동아리 리더교육 △관내 14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로 많은 시민이 거리낌 없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독서와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행사로 △도서관에서 즐기는 '야간 산책' △범시민 독서행사인 'Book적 Book적 시민독서한마당' △우수한 문화교류 강화 △'문화가 있는 날'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산책' △지역작가 지원사업 △'길 위의 인문학' △'10월의 하늘 - 과학자 재능기부 강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야간 산책'은 안동시립중앙도서관 야외에 아름다운 조명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찾고 싶은 도서관 행사로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안동시립도서관은 올해 대출권수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동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안동시민이 편안하게 즐기는 도서관 문화를 형성해 시민 전체가 책의 향기에 물들여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고 자유롭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민뿐만 아니라 안동에 머무르는 타 지역민도 언제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책 읽는 도시 안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양도서관 영양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플러스 후속 프로그램 운영

## 북스타트, 나의 첫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은 영유아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인 '나의 첫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4년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은 책 꾸러미 증정 이벤트를 시작으로 4월 책놀이 프로그램과 5월 북스타트 주간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북스타트 사업을 알리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운영한다.

책놀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4회 영양어린이집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북스타트 선정

도서인 "홀홀 도르르 마법병원", "엄마가 잠든 사이" 두 권의 그림책을 주제로 책 읽어주기, 질문, 대화,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손수진 관장은 "유아기 시절 도서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해서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고자 올해 북스타트 사업을 폭넓게 운영하니,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천시, 북물 터지듯 흘러넘치는 유물 기증, 기탁

## 오천정씨 환구세덕사 보존회에서 족보 목판 775점 기탁

영천의 뿌리 깊은 문중, 오천정씨 환구세덕사 보존회가 족보 목판 775점을 영천시에 통 크게 기탁했다.

본래 족보 목판은 영천시 임고면에 소재하는 환구세덕사 보관각에 소장돼 있었으나, 목재류 특유의 까다로운 보존 환경 등을 이유로 오천정씨 환구세덕사 보존회에서 영천시로 목판 이관을 결정했다.

지난 16일, 오랜 기간 환구세덕사를 지니던 오천정씨 선조들의 족보 목판 이관에 앞서, 문중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모여 엄중히 고유제를 거행 후 영천 시청 담당 학예사에게 족보 목판 775점을 인수인계했다.

환구세덕사 보관 기탁 축문

우리 영일정씨세보는 1553년에 계축보가 만들어진 이후, 이곳 환구세덕사에서 영천지역 선조들의 노력으로 1649년 인조 기록보, 1774년 영조 갑오보, 1865년 고종 을축보가 만들어져 일가의 뿌리 보존에 진력을 다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인쇄술의 발전으로 종전 목판 인쇄를 주로 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책자 족보를 거쳐 전자 족보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에 목판의 보존은 부식과 도난으로부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천시에서는 박물관 건립과 더불어 지역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문중에서도 때마침 환구세덕사에 보관 중인 보판을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해 이번엔 영천시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판을 영천시에 이관하기에 앞서 섭섭한 마음에 우리 후손들이 모여 선조님께 감사함을 고하고 또 영천시에서는 잘 보존해 달라 마음을 담아 올리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16일 환구세덕사 보존회장 정영호

이후 영천시는 임시 수장고로 임차하고 있는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수장고로 족보 목판 775점을 무사히 이관 완료했다.

족보 목판은 목재 보존 환경에 맞게 적정 온·습도를 조성해 보관·관리될 예정이며, 영천시립박물관 준공 후 박물관 전시와 연구를 위해 박물관으로 재이관된다.

보판은 조선시대 가문의 역사와 가계를 기록하는 족보를 목판에 새긴 것을 일컫는 말로, 목재에 정교한 조각 기술과 서체로 새겨진 목판은 가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족보 목판을 통해 가계 연혁을 확인해 가문 내 상속과 친족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문의 유산을 관리하는 등 신분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기는 장치가 됐다.

앞서 오천정씨 족보 목판을 감정한



장인진 박사(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연구소)는 "영천시에 기탁된 족보 목판은 총 775점으로 세보, 속보 두종류가 있다.

세보는 영조(1720~1774)시기 판각된 경자판 목판으로 275점, 속보는 고선대원군(1848~1865)시기 판각된 목판으로 500점이다.

조선 후기 족보는 목활자본으로 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천정씨 족보 목판은 18~19세기 판각한 자료라는 점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탁 건에 대해 영천시는 22일 오후 시청실에서 오천정씨 환구세덕사 보존회 회장 정영호, 총무 정영준, 정기하씨를 모시고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기탁식을 치렀다.

환구세덕사 보존회 정영호 회장은 "우리 정씨 족보를 오랜 세월 환구세덕사에 보관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다.

영천시에 기탁하기까지 문중 내에서 이견도 있어 수일이 걸렸다.

영천의 문화유산은 영천에 있어야 더 빛이 나기에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금껏 환구세덕사에 보관해 지켜냈다. 영천시에서 우리 오천정씨 족보를 정히 보관하고 연구해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빛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에 기탁까지 문중에서 수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으로 안다.

영려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리에 노력하겠다."며 귀한 유물을 기탁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으며, "최근 영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영천시립박물관 유물기증운동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증·기탁식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노력의 시작이기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는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물 확보를 시작해 2024년 4월 현재까지 총 2,320점(기증 1,323점, 기탁 775점, 구입 222점)의 유물을 확보하는 수확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시립박물관의 다양한 불거리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영천의 주요 문중과 국립경주박물관(윤전리, 완산동, 화남리 유적 등), 국립고궁박물관(인종대실), 한국국학진흥원(문중 기탁 등) 등으로 흩어져 있는 유물 확보 및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 영덕군, 자원봉사 행복마을 18호 사업 금호2리에서 개최

## 자원봉사자와 주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잔치 한마당 펼쳐져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강구면 금호2리 일대에서 자원봉사단과 마을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자원봉사행복마을 액션데이를 개최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와 마을주민들의 참여로 마을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함께 마을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유대감 증진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마을 재생 사업으로,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 관내에 18호 행복마을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행복마을 현판 제막식엔 참여단체와 기관을 위한 환영 행사와 함께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벽화작업 라운딩,

문패 교체와 같은 여러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봉사자들은 타로카드와 식음료 부스 등을 운영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행사를 곁들여 마을 사람들이 흥겹게 어울릴 수 있는 잔치 분위기로 물들였다.

권영걸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신의 재능을 공익에 아낌없이 나눠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자원봉사자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에 흩어진 수많은 마을 중에서도 손길 발길 잘 닿지 않은 지역을 찾아 생활의 여건을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봉사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경북도, 재난대응 실전형 주민대피 훈련 실시... 대피체계 점검

## 도민생명 최우선 원칙'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가동

경상북도가 '도민생명 최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12시간 사전대피 예보제를 운영하는 사전예측단계, 마을 순찰대와 마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조기대피 단계, 즉시 대피와 긴급구호를 하는 본격대응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도는 이러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9일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마을에서 재난대응 실전형 주민대피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번 훈련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산북면 이장협의회, 시군 재난



부서 관계 공무원,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사태를 대비해 12시간 사전대피예보제 발령에 따라 조기 대비를 하고, 본격 대응에 따른 마을대피소 설치 대응 주민 대피훈련과 주민대피행동

실전 상황을 대비했다.

이번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 마을 훈련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과거 침수·산사태 발생지역 등 위험 요소가 있었던 마을을 우선 선정해 실시했다.

도는 4월 말까지 예천군 감천면 수한리마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마을, 봉화 봉성면 우곡2리 마을을 대상으로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고, 나머지 시군은 자체 훈련으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확산·적용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도민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며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피명령 발령시 적극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본격적인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사고는 봄철(4부터 5월)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사고는 신체가 농기계에 끼거나 깔리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농기계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이에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6월 31일까지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또한 임대 사업 장비 입·출고 시 경운기, 트랙터, 목재파쇄기, 관리기 등 각 기종별 농기계 작동 방법과 안전운전 요령을 중점 계도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야간 운행 삼가,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금지, 전도·추락 위험 경사지 주행 금지 등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으며,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에 자주 일어나는 농업기계의 도로 주행 사고를 비롯한 영농 활동 중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 농기계 사용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부산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본격 시작!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최

4.25.~4.30. 6일간 '영화 & 현실(Cinema & Reality)'을 주제로 영화의전당, 비엔케이(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43개국 136편 단편영화 상영



부산시는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의 2024년 영화제 시작을 알리는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영화의전당, 비엔케이(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열린다.

시가 후원하고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단편영화제'로 1980년을 시작으로 올해 41회를 맞는다.

올해는 '영화 & 현실(Cinema & Reality)'을 주제로 현실을 가장 날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편 영화의 특장점을 통해 전통의 3D(D) 영화, 실험영화, 양방향(인터랙티브) 영화 등 현실을 담은 단편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영화제 기간에는 116개국 3,682편의 출품작 중 국제 경쟁 39편, 한국 경쟁 20편을 포함해 총 43개국 13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올해 개막작은 영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초청작이 아닌 국제 및 국내 경쟁작품 중에서 주빈국, 아시아 그리고 한국 작품 총 3편이 선정됐다.

▲주빈국 이탈리아 작품 '다이버' ▲아시아 작품 '진짜 맹세해' ▲한국 작품 '내 어머니 이야기'로, 4월 25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개막식 사전공연으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드론으로 그리는데 드로잉 퍼포먼스 콘서트'를 반도넨 연주와 선보일 예정이며, 개막공연으로는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주세피나 토레의 '시네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를 주빈국으로 선정해 '티아모(Tiamo)! 이탈리아!' 슬로건 아래 이탈리아의 다양한 단편영화를 상영한다.

주빈국 프로그램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단편영화를 아주 깊고 넓게 소개한다.

주빈국 프로그램 외에도 코리아, 아시아, 프리즘, 특별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신매체(뉴미디어) 시네마 워크숍, 신매체(뉴미디어) 체험 공간(부스) 등을 통해 신매체(뉴미디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영화인의 성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La Cinematheque Francais)'에서 국내영화제 중 최초로 특별전을 개최해 한국의 우수한 단편영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주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미국 영화 전문 잡지(매거진) '무비메이커

(MovieMaker)'에서 선정한 '출품작이 아깝지 않은 영화제 리스트'에 아시아 영화제 중 유일하게 선정돼 세계 영화계에서 영화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오는 4월 30일 오후 7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부문별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문 12편의 수상작을 발표한다.

영화제는 국내 최초 아카데미 공식 인증을 받은 영화제로 국제·한국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을 수상한 작품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라이브 액션 부문,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자동으로 추천된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관광은 "'영화 & 현실'을 주제로 앞으로 6일 동안 펼쳐질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다양한 영화적 형식으로 현실을 담은 세계 각국의 좋은 작품들을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상영작, 시간표 등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영작 예매는 영화의전당 누리집과 현장에서 가능하다.

김희태/기자

# 포항시, 3년 연속 배터리산업도시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배터리산업도시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 쾌거

포항시는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배터리 산업도시 부문' 3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허브도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지난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는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 및 피플인 사이트에서 주관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부문별로 특화된 브랜드를 가진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을 소비자가 직접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배터리 산업도시 부문에서 후보로 참가한 6개 지자체 중 최정상기도, 인지도, 마케팅활동, 브랜드 선호도 총 4개 평가 항목에 시 포항시가 모두 높은 지표를 받아 3년 연속 대상 수상의 기쁨을 도했다.

포항은 지난 2017년 에코프로의 투자를 시작으로 2019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영일만과 불루벨리산단에 관련 기업들이 집적하고 오는 2027년까지 14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확정되는 등 이차전지 인프라 구축과 산단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지난해 7월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특화단지 지정 이후 포항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 및 생산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신속히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양극재 생산 1위 기업 에코프로와 50년 철강산업의 제련기술을 바탕으로 한 포스코퓨처엠 등 국가대표 이차전지 기업이 동지를 틈 포항은 이차전지 선두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산단 인프라 지원으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완성해 가고 있다.

아울러 향후 2030년까지 배터리 양극재 100만 톤 생산, 매출 70조 달성, 고용 1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포항시는 이차전지 투자특례시 조성, 포항형 배터리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현장 중심 산학연 거버넌스 강화라는 3대 전략으로 '2050 전지보국 도시 포항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배터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특화단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적기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전지보국 실현뿐만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대구광역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 최종 선정

총사업비 90억 원 확보로 지역 제조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제조업 인공지능(AI)융합 기반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실증을 통해 제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인공지능(AI) 개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조업에 특화된 인공

지능(AI)융합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조 인공지능(AI) 기반 조성 및 전환(AX)을 위해 제조업 현안 해결을 인공지능 전환(AX) 랩 구축·운영, 제조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실증 지원,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 컨설팅, 인공지능(AI) 표준 모델 시험·인증 지원 및 국내외 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각 지역 중점산업의 생산 효율화를 위해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인공

지능(AI) 기술 개발·실증이 지원된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제조 현장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지역 간 교차실증 및 솔루션 복합 실증이 향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3년간)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300억 원, 지방비 150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 참

여하는 인공지능(AI) 기업과 제조기업(공급·수요기업 컨소시엄)은 다음 달부터 공모를 펴 평가·선정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산업에 활용·융합하는 인공지능 대 전환(AX)이 지역산업 경쟁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와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인공지능 융합 기술 혁신과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청송군은 15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및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파천면 중평리 일원에는 타석 36개, 전장 200m 이상,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인 최신 실외 골프연습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 대

표로부터 '청송군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추진현황 및 기본계획안, 건물배치 및 평면 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의견을 경청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조성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아웃도어골프연습장 건립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골프 동호인의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여가 선용과 주민 건강 증진, 골프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서울시, "장애인 화장실 찾기 쉽게"... 2500곳 전수조사·세부정보 '스마트서울맵' 게시

## 동구발(사회적기업)·굿피플(NGO)과 '모두의 화장실'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



앞으로 서울 도심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찾고 이용하기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심 내 장애인 화장실 2,500개를 전수 조사해 입구단차 등 세부 정보를 '스마트서울맵'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

화 일자리사업을 통해 선발된 장애인들과 함께 연말까지 도심 내 공공 장애인 화장실 2,500여 개소를 전수 조사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도 추가로 500개를 발굴해 지도상에 등재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후에는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기본적인 위치를 비롯해 접근로, 입구단차, 출입구 등의 세부 정보를 사진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서울맵'은 서울의 행정, 생활 정보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생활지도 서비스로, 스마트서울맵 내 '도시생활지도'→ 추천테마 중 '동행서울'→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지도' 정보를 차례로 누르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용품을 쌓아놓거나 기물을 파손해 사

용할 수 없는 실태를 바로잡고자 사회적기업 '동구발', 사단법인 굿피플과 함께 장애인 화장실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모두의 화장실'을 진행한다.

사회적기업 '동구발'은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난 2월 일반 시민 대상으로 '모두의 화장실'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사단법인 '굿피플'은 국제구호개발 NGO로, 동구발 서포터즈 요원들과 함께 장애인 화장실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동구발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장애인 화장실 관련 컨텐츠와 모두의 화장실 캠페인 내용은 동구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 활동과 함께 동구발에서는 4~5월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해 장애

인 화장실 100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대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받이 등이 파손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화장실은 2,500개 화장실 전수 조사 시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위치 찾기가 어렵고 미개방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이용에 제약이 많아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며, "도심 내 장애인 화장실 전수 조사와 관련 정보를 '스마트서울맵'에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쳐 장애인들이 도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더 쉽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중구, 주민편애(愛) 데이트 일정 짰다... 첫 상대는 신당5동

##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 운영

서울 중구가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를 운영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오는 6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15개 동을 찾아가 주민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지난해 운영된 '1일 현장 구청장실'에 내실을 더한 심화 버전으로 구청장이 주민과 현안을 놓고 토론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올해부터는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 위주로 '데이트' 일정을 짰다. '시 내 편 중구'에서도 주민 제안을 24시간 받고 있다.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은 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고, 하반기 '주민 소통간담회'를 열어 이행상황을 주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민과 다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 현장 구청장실에서 총 280여 건의 주민 제안을 받고, 이 중 153건을 이행했다. 법령상 제약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46건에 대해선 주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직 시행이 완료되

지 못한 58건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적기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지난 16일 신당 5동에서 다동이 가정, 봉사모임, 다문화가족팀 등 30여명의 주민들과 '첫 데이트'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 다동이 엄마는 "중구가 제공한 단기 일자리에 취업해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 키우면서 하기 좋았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가 더 많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귀화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중구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다문화가정도 있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장에서 주민과 만나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무척 기다려진다"라며 "주민들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해결될 때까지 주민 편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 새로운 성동형 동네배움터 출범... 이달 29일부터 상반기 수강생 모집

## 올해 총 17개 배움터에서 42개 프로그램 및 10여 개 학습-실천 프로젝트 운영

서울 성동구가 동(洞) 평생학습센터 구축을 위해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을 성동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성동구 동네배움터' 운영에 나선다.

'성동구 동네배움터'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동네배움터는 서울시 사업으로 운영하여 '나는야 환경동화 작가', '내 손으로 만드는 도자기 공예' 등 총 6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833명의 학습자가 수강했다. 또한 독거어르신 사랑의 반찬나눔, 치매예방활동가 봉사활동 등 30개의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성동구민에게 보다 가깝고 유익한 평생학습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올해는 동네배움터 사업이 성동구 자체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4천 2백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기존 배움터 재정비를 통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 운영 가능한 공

간을 발굴하여 10곳의 동네배움터를 신규 발굴·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7개 배움터(거점 배움터 4개소, 특화배움터 10개소)에서 42개 프로그램 및 10여 개의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특화된 동네배움터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비전을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도약 과정,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환경 동화 제작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성동구청 누리집 신속예약 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 및 재료비는 학습자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성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수준 높고 다양한 학습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강좌명 (이름/학습자 부담)	재료비	수업 일정	강사명	인원	운영장소 (배움터명)
왕기호 건강해지는 환경태권도	50,000원	5.20.-6.10. (토) 4회 10:30-12:00	최고교	15	성동구 2동 (신당5동)
나는야 환경동화	30,000원	5.20.-5.27. (토) 2회 13:00-14:30	조한진	16	성동구 2동 (신당5동)
왕기호 맛에 끌리는 커피와 모든 것	32,000원	5.21.-6.11. (토) 4회 10:00-11:30	문준희	8	성동구 2동 (신당5동)
*창업 및 마케팅 전략	40,000원	5.21.-6.11. (토) 4회 10:30-12:00	박유진	10	성동구 2동 (신당5동)
비밀 기호찬 차근차근 도자기(강제수업)	32,000원	5.24.-6.14. (토) 4회 10:00-11:30	유영숙	10	성동구 2동 (신당5동)
*일상을 채우는 그림, 쉽게 시작하는 그림	70,000원	5.24.-7.26. (토) 10회 10:00-11:30	이수정	30	성동구 2동 (신당5동)
*일상을 채우는 그림, 쉽게 시작하는 그림	-	5.24.-6.7. (토) 3회 14:00-17:00	박희진	30	성동구 2동 (신당5동)
*나는야 환경동화 작가	10,000원	5.25.-7.27. (토) 10회 10:00-12:00	박희진	12	성동구 2동 (신당5동)
내 손으로 만드는 도자기 공예	60,000원	6.3.-6.24. (토) 4회 19:00-20:30	임지우	8	성동구 2동 (신당5동)
태도야!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2급)	15,000원 (50,000원)	6.4.-7.23. (토) 8회 10:00-12:00	송지혜	10	성동구 2동 (신당5동)
*종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	6.5.-6.12. (토) 2회 19:00-20:30	최유정	20	성동구 2동 (신당5동)
*가까이하는 원주민 알뜰한	80,000원	6.5.-7.3. (토) 5회 10:00-12:00	김희진	10	성동구 2동 (신당5동)
나만의 DIY 목공예: 우드 드레스러	150,000원	6.10.-6.13. (토) 4회 09:30-12:00	백지민	8	성동구 2동 (신당5동)
몸과 마음은 기쁘게 웃어주세요 (노년층을 위한)	30,000원	6.14.-6.28. (토) 4회 10:00-11:30	문주희	15	성동구 2동 (신당5동)
손글씨로 엮는 정서치료 수납박스	30,000원	6.15.-7.6. (토) 4회 10:30-12:30	백지민	10	성동구 2동 (신당5동)
재미 가득한 요리(407) (습기보존 채소 요리)	-	6.19.-7.3. (토) 3회 19:00-20:30	최지민	30	성동구 2동 (신당5동)
*치매예방 프로그램 (노년층을 위한)	-	7.2.-7.9. (토) 2회 14:00-15:30	최유정	7	성동구 2동 (신당5동)
왕기호 맛에 끌리는 커피와 모든 것	80,000원	7.5.-7.26. (토) 4회 11:00-12:30	최유정	7	성동구 2동 (신당5동)
왕기호 맛에 끌리는 커피와 모든 것	-	6.3.-6.24. (토) 4회 14:30-16:00	임지우	12	성동구 2동 (신당5동)
*치매예방 프로그램 (노년층을 위한)	-	6.13. (토) 1회 14:00-15:30	박유진	12	성동구 2동 (신당5동)
오일아트(꽃) 그리기	20,000원	6.14.-7.5. (토) 4회 13:00-14:30	최지민	15	성동구 2동 (신당5동)
건강한 삶에 구경관람	-	7.2.-7.9. (토) 2회 14:00-15:30	최유정	20	성동구 2동 (신당5동)

# 은평구, 완벽한 비상사태 대비 확립을 위한 2024년 총무 훈련 실시

##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인력 장비 등 주요 자원을 대상으로 실제 동원 훈련 진행

은평구는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인력·장비 등 주요 자원을 대상으로 실제 동원훈련이 중심이 되는 '2024년 총무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무훈련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작전을 위한 주요 자원을 동원한다.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을 긴급 복구하며 전·평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훈련기간 은평구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능력의 점검을 위한 전시 종합상황실이 운영된다. 국가 동원 선포 시 동원자원 임무 고지와 상황대처 능력의 점검을 위해 군·경과 연계해 기술 인력 및 건설기계의 동원훈련을 진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국제 위

기가 고조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위기 상황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은평구의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피어나다 남원 남원

춘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남원 춘향제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

### 강원도, 2024년 민·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4. 1. ~ 4. 30.)을 맞아 4월 19일 원주 치악산국립공원과 평창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도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평창군, 국립공원공단, 원주시·평창군 산림조합과 입엽후계자협회 등 입엽인 단체를 비롯해 총 70여 명이 참여하여 산불예방 수칙과 안전한 산행을 위한 금지사항 등을 홍보했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봄철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입산 시에는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와 흡연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도민의 생활 밀착형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여 산로로부터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 충청남도 비타민 다량 함유 구기순...봄나물로 인기

#### 도 농기원, 봄철 순 숙기 작업 시 나오는 구기순 나물 이용 권장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2일 새순이 올라오는 봄철 구기자 순 숙기 작업 시 나오는 구기순의 효능과 이용 방법을 제시했다.

구기자 순 숙기는 새순이 20cm 정도 자랐을 때 분출기 끝에 자란 건전한 새순 5부터 6개만 남기고 제거하는 작업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맹아를 비롯한 모든 순을 제거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때 제거한 새순의 부드러운 부분을 채취해 봄나물 및 장아찌 등 식재료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구기자 주산지인 청양지역에서는 예로부터 구기순을 나물, 볶음, 국, 찌개 등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구기자는 줄기를 제외한 열매, 순, 뿌리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봄에 나는 구기순은 베타인과 루틴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가 육종한 '화수' 품종은 맹아력이 우수하고 열매 생산량도 많은 품종으로, 과번 무하는 특징이 있는데 2단 올타리 재배 시 봄철 구기순을 5~6회 수확할 수 있다.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품종 출원 중인 구기순 전용 품종인 '청순'을 품종 등록한 뒤 재배 농가에 보급해 충남지역 특산물로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중 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연구사는 “구기순은 맛과 영양이 풍부해 지역특산물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구기순이 구기자 재배 부산물에 그치지 않고 부가 소득 창출원이 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보급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근/기자

### 충북도, 세계한인무역협회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 도내기업 25개 사, 월드옥타 바이어 41개 사 참여 수출상담

충청북도는 4월 19일(13시~18시) 그랜드플라자 청주 지지홀에서 2024 세계한인무역협회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역상담회는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중국, 일본, 태국 등 바이어 41개 사와 소비자, 화장품, 식품 품목의 도내 25개 사가 참가하여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월드옥타 바이어들은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25차 세계대표자

회의('24. 4. 16. ~ 4. 19.)' 참가 후 충북도의 요청에 의해 도내기업들과의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바이어 만찬에 함께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월드옥타 회원들에게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 충북을 소개하며, 이번 상담을 통해 도내기업과 많은 협력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창립되어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명의 CEO와 2만 천명의 차세대 경제인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이다.

고정화/기자



### 아산시, 이순신 장군 탄신주간 선포식과 신정호 친수식 거행

아산시는 성웅 이순신장군 탄신 제479주년을 맞아 21일 신정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탄신주간 선포와 함께 친수식을 거행하면서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아산시 자율방범연합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선포식과 친수식은 오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개막을 앞두고 열릴 의미 있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박경귀 시장을 비롯해 김희영 시의회 의장,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이종학 덕수이씨 총무공파 종친회장, 각급 기관단체장과 자율방범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귀 시장은 “이순신 장군 '탄신주간' 선포와 동상 친수식을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축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행사들이 펼쳐질 것”이라며 “최고의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아트밸리 아산에 이순신 장군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공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충남 최고의 '키즈가든'과 올해 조성되는 '지방정원'이 완성되면, 신정호 아트밸리는 아산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그 서막이 바로 오늘이

며, 우리 아산은 이제 이순신의 도시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아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난 뒤 박경귀 시장은 크레인 타고 올라 이순신 장군 동상의 목은 때와 먼지를 물로 씻어냈다.

한편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오늘 탄신주간 선포와 친수식을 시작으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온양온천역, 곡교천 등 아산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 아트밸리 아산 제2회 군악의장 페스티벌, 백의중군길 걷기대회와 마라톤대회, 나중일기 사생대회 및 백일장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열린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한우 시식·할인판매 행사 진행

태백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장성탄탄마당에서 개최되는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기간에 '한우 시식·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태백시지부, 동해삼척태백축협이 주관하고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 후원하는 행사로, 산나물과 어울리는 한우를 제공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 소비 촉진을 통해 한우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한우 즉석 불고기 약 200kg 분량이 시식 행사로 제공되며, 한우 전 품목에 대해 25% 할인판매 행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한우탈 만들기' 체험행사도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사계절 축제 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에 찾아오시는 모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산나물과 한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한 한우 소비 촉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 제27회 2024 광주왕일도자 컨퍼런스

## 2024. 5. 3. 금 — 5. 15. 수

### 곤지암도자공원 일원 13일간

#### 개막식 5. 4.(토) 16:00

20<sup>TH</sup> WASBE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  
2024. 7. 16. - 7. 20.



# 미국·중국·싱가폴 해외 빅 바이어 방문확정... 서울시, '2025 S/S 서울패션위크' 9월 개막

영국·미국·중국 등 해외 유력바이어 방문 확정...해외진출실적, 성장가능성 집중평가



서울시는 대한민국 패션산업의 중심인 '동대문·성수·한남'을 배경으로 개최될 '2025 S/S 서울패션위크'에 참여할 브랜드를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 서울패션위크가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브랜드와 국내·외 패션 관계자, 인플루언서, 대중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시즌(25S/S)에는 100명 이상의 해외 유력 바이어 유치 예정이며 현재 글로벌 유통(백화점, 편집샵) 체인 ▲하비 니콜스(Harvey nichols, 크웨이트) ▲레인 크로포드(Lane Crawford, 영국) ▲노드스트롬(Nordstrom, 미국) ▲아이티 차이나(I.T. China, 중국) ▲도버 스트리트 마켓(Dover street market, 싱가포르) 등의 방문이 확정됐다.

올해부터 패션쇼와 더불어 비즈니스 교류에 최적화된 방식의 프리젠테이션쇼(이하 PT쇼)를 별도로 구성한다.

(패션쇼) 패션쇼 참여 브랜드에게는 시스템, 온라인 송출,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같은 기간에 개최하는 트레이드쇼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서울패션위크(패션쇼)에 최초 데뷔하는 브랜드에 한해서는 패션쇼 연출, 모델, 헤어·메이크업 등을 일부 지원한다.

(PT쇼) PT쇼는 1일 2회까지 진행 가능(골프의류 등 아웃도어 브랜드 참여 가능)하며 국내외 패션 관계자(바이어, 프레스, 투자자 등) 현장 초청 및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성공

적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도 가능하다.

패션쇼에 참여하는 모든 브랜드는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패션쇼 참여 브랜드 심사는 정량평가(최근 1년간 국외 매출)와 정성평가(▲브랜드 프로필 ▲시즌 기획(안) ▲최근 2시즌 포트폴리오)로 진행된다. 해외 패션 매거진 편집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해외 시장 진출 실적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또한, 이번 참여브랜드 중 밀라노 패션위크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가 브랜드를 동시에 선발할 예정이다. 밀라노패션위크 교류협력(서울시-CNMI) 프로그램은 온라인 멘토링, 이탈리아 패션 제조현장을 방문하는 투어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② 패션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 대화 ③ 양도시 패션·뷰티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 증진 등이다.

밀라노 패션위크는 세계 4대 패션위크(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로 손꼽힌다.

'트레이드쇼'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이다. 2개 유형(▲수주전시 ▲쇼룸투어)에 걸쳐 100개사를 모집한다.

바이어가 직접 브랜드의 쇼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시즌 참가 브랜드와 바이어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은 '쇼룸투어(성수, 강

남)'는 올해 '한남 지역'을 추가해 진행한다.

(수주전시) DDP에서 진행되는 수주전시에는 브랜드 당 개별부스, 사전매칭을 통한 해외 바이어 1:1 수주상담, 무역실무 교육, 디렉토리 등록 및 국내외 매체 홍보를 지원한다.

(쇼룸투어) 해외 바이어 방문일정 관리, 디렉토리 등록 및 국내외 매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3개 패션 상권(한남, 성수, 강남)을 주요 권역으로 삼고 있다.

트레이드쇼는 ▲의류 ▲잡화(가방, 수제화)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 가능하며, 심사는 정량평가(최근 1년간 국내 및 국외 매출)와 정성평가(▲브랜드 프로필 ▲최근 2시즌 포트폴리오 ▲성장가능성)로 진행된다. 트레이드쇼는 국내위원 평가만 진행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패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라며 프리젠테이션쇼, 쇼룸투어 등 세일즈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역량 있는 K-패션 디자이너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경상남도,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역 관광투자유치 지원 공모선정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지원

경상남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지역 관광투자유치 컨설팅 및 홍보지원 공모사업'에 로봇랜드 조성사업(2단계)이 최종 선정됐다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공부문이 추진 중인 관광자원개발 사업 중 민간 투자유치가 포함된 사업을 선정해, 투자대상지의 상품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상품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컨설팅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전액 부담하며,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는 컨설팅 기간에 사업대상지의 민간 투자유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연말에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와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총 8개가 신청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포함한 최종 2개소가 선정됐다.

경남도는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투자 컨설팅 전문가기관의 자문을 비롯해 이미 선정된 지역의 자료 분석을 통해 서면심사 자료를 작성했다.

현장심사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로봇랜드 주변 개발수요와 함께 로봇랜드 조성사업 2단계 사업부지의 선제적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집중적 설명이 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PF대출

고금리,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로봇랜드 조성 2단계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번 관광투자 유치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투자유치 컨설팅과 홍보 지원을 통해 로봇랜드 2단계 사업부지의 민간투자 유치 전략을 제수립하여 새로운 민간투자자 유치가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 고양특례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총력

바이오·메디컬 43개 기업, 5348억원 투자의향서 제출

고양특례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바이오·메디컬기업 투자자의향서 총 43건, 5348억원을 확보해 지정을 신청했으며 향후 바이오 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월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족시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바이오 특화단지 대상지는 일산서구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지역 약 87만m<sup>2</sup>(약 26만평)이다.

시는 그동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중요한 평가 요소인 민간투자 수요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기업 분야에서는 총 43건, 5348억원 규모의 투자자의향서를 확보하고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계획에 반영하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특례시는 이달 30일 일산테크노밸리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발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단지 조성 인·허가 단축 ▲산업



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및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 및 기반 시설 조성 ▲세금·부담금 감면 및 민원 신속 처리 ▲정부 연구개발(R&D) 국비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 바이오분야를 추가했고 지난해 12월부터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에는 수도권에서 인천과 경기 수원·고양·성남·시흥시, 비수도권에서 충북·대전·강원·경북·전남·전북 등 총 11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제283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등 글로벌

별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며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및 스마트시티 조성, 4차산업 국·내외 선도 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경영환경과 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의 필요를 반영하여 장래에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르면 하반기에 최종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고양특례시

# 2024

##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 경북교육청,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이용자 7만 명 돌파

## 교직원의 멘토 생성형 AI! 부담 없이 즐겨요

경북교육청은 선생님들의 멘토 역할을 독특히 하는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의 이용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2023년 11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 도입한 이래 4월 현재 누적 이용자 수 240만 명을 돌파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인지·학습하고 생성하여 교직원의 질문에 대화하듯이 답변하는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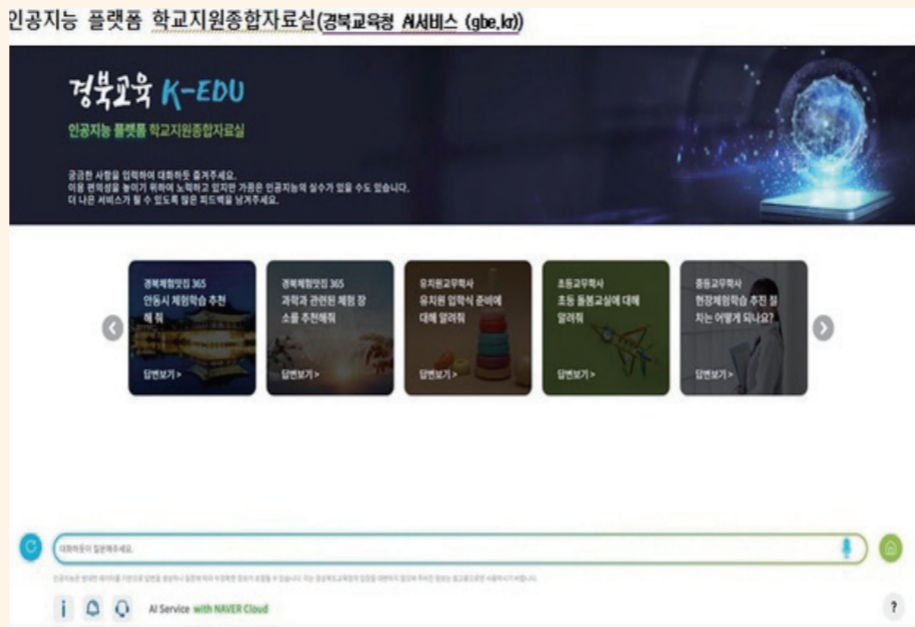
특히, 2월부터는 그 영역을 넓혀 경북의 체험학습 장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생성형 AI의 이미지에 맞는 친숙한 이름을 짓기 위한 공모를 하는 등 교육 통합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질의응답은 학교 현장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인공지능 학·지·종 이용자들의 질문 이력을 모니터링하여 업무추진 시기와 질문 패턴을 분석하고 예시 질문을 월별로 특화해 제공함과 동시에 음성인식 기능을 개발하여 질문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손잡으면 힘! 함께하면 꿈! 같이의 가치!

## 봉화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실시

봉화고등학교(교장 여병태)는 지난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손잡으면 힘! 함께하면 꿈! 같이의 가치!'를 주제로 지난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장애공감 실천주간을 운영하고, 19일(금)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본교 봉사 동아리인 '같이의 가치' 소속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점자 열쇠고리 만들기, 도전! 장애공감 퀴즈, 따뜻한 커피트럭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본교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공감능력을 길러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특히, '따뜻한 커피트럭'은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 '음천리382'와의 협업

을 통해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직무체험과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장애인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에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봉화고등학교 여병태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미래 인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 경북교육청, 학부모 안심유치원 207개 원 운영

## 온종일 맘 편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부모 안심유치원 207개 원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학부모 안심유치원 사업은 유치원에서의 건강과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개 원이 증가한 207개 원을 학부모 안심유치원으로

선정하고, 2억 7백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또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을 통해 건강·안전 문화 개선과 확산, 교직원의 유치원 안전 역량 제고, 체험 중심 교육 강화, 효율적인 유치원 시설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유치원 업무 담당

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연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안심 문화 조성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학교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모든 유치원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으로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안심 환경 조성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맞춤형 교육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영주 풍기초, 「늘봄 선도학교 운영」



풍기초등학교는 4월부터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늘봄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풍기초등학교의 늘봄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한 하루하루'를 슬로건으로 아침늘봄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늘봄은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아침식사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방과후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현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배트넘어와 악기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늘봄 선도학교 운영에 대하여 "늘봄 운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 사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 성주 대가초,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실시

대가초등학교는 지난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2024학년도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교실에서 '대한민국 1교시'영상을 시청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은 인공와우의 역할과 인공와우 이외에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영상과 관련된 색칠하기 활동을 하였다. 고학년 학생들은 장애보조 공학기기의 뜻과 종류를 살펴보고, 장애보조 공학기기를 직접 디자인하여 서로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다.

더불어 성주군 보건소 및 국립재활원과 연계하여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립재활원 소속 강사님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듣고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학교와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4학년 정OO 학생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몸이 불편하더라도 다양한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악기를 연주하는 영상 속 모습이 멋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현/기자



# 예천교육지원청Wee센터, 친구야 우리 같이 이야기할까?

## 경북학생상담자원봉사자 예천연합회 상반기 집단상담 시작

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관내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 간 2024학년도 상반기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집단상담은 감천초등학교 3~6학년생들을 시작으로 관내 3개교 1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자기성장,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계획이다.

예천교육지원청 이창희 교육장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에는 관내 15개 학교에서 404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었다.

집단상담 첫 회기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둘러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매주 선생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레고와 함께 코딩하고! 유리전사로 디자인컵 만들고!

## 2024학년도 상반기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발명교실 실시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토),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2024학년도 상반기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발명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과 발명에 관심이 많은 안동시 학부모와 학생 20가족이 참가하였으며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으로 작품을 제작한 후 코딩으로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과 '유리전사로 디자인컵 만들기'로 디자인 발명에 대하여

알아보는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토의하며 레고로 작품을 만들고 코딩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었으며, 유리전사를 통해 가족의 모습을 담은 디자인컵을 만들어 가족애를 키울 수 있었다.

이번 수업에 참가한 학부모는 "장난감으로만 알았던 레고를 활용하여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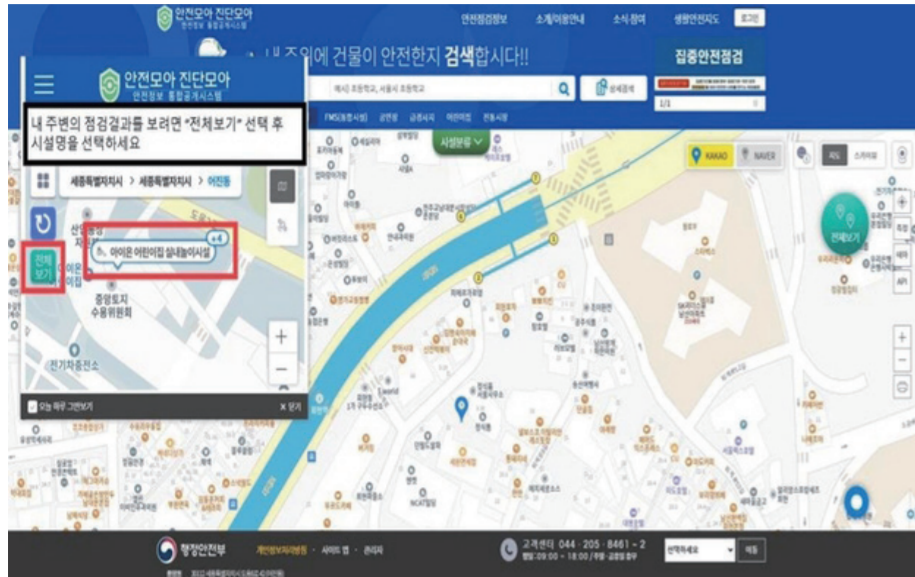
들이 어렵게만 생각했던 코딩을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SW·AI 교육 및 발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동교육지원청은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서울시, 관내 시설물 2,104곳 집중점검...6월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 190명의 안전관리자문단, 지역건축사협회 전문가와 함께 시설유형별 점검 지침 활용



서울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내 시설물 2,104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정부·지자체·시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층차량기지를 포함한 교통시설(185곳),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해체공사장 등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203곳),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72곳)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산업시설(315곳) ▲판매시설(117곳) ▲숙박시설(99곳) ▲자연시설(97곳) ▲기타시설(92곳)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은 건축·전기·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설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된다.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병행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5월 7일 진행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안전점검에는 서울시행정2부시장, 안전총괄관, 서울시설공단, (사)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 등이 참석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철거·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 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 독려에도 나선다.

시민 스스로 우리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한다. 동시에 시·구 누리집, 소식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집중점검 기간을 홍보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안전 관련 시민단체·기관의 누리집에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어르신연합회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는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대전환 기간에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기반을 견고히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서울 만들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부산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 4.22~6.21. 61일간 최근 사고발생 시설 등 노후·고위험시설 1,219곳

### 집중안전점검 실시

부산시는 오늘(22일)부터 6월 22일까지 61일간 최근 사고발생시설 등 노후·고위험시설 1천219곳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 1천219곳(구군 1,094곳, 사업소 및 공사 등 125곳)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유원시설, 대형공사장과 물류창고, 대형판매시설과 출렁다리 등 다중 이용시설, 그리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고위험시설 등 10개 분야(급경사지, 건설공사장, 복지시설 등)에서 선정됐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실시해 집중안전점검 기간 시민들이 안전점검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시와 자치구·군, 사업소,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하며, 각 기관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 사물인터넷(IoT)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의 특성상 육안이나 일반 장비로 점검이 곤란한 시설까지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정보공개통합공개

시스템에 공개하고 이곳에 점검자의 실명도 공개해 안전점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주민참여 강화와 생활 주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 활용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기간 범시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펼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단순·경미한 위험사항은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자율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진주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 이달 22일부터 민·관 합동 전문장비 활용하여 107개소 시설물 점검

진주시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61일간 관내 107개소 시설물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일상생활 주변 중점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축시설 및 산업시설 19개소, 교통시설 16개소, 어린이 이용시설 3개소, 복지시설 9개소, 다중이용시설 6개소, 자연시설 32 등 20개 분야 107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 합동으로 참여하며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드론, 철근탐지기 등 첨단 장비와 시설별 안

전점검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점검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결함 등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정에 스스로 안전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하여 안전점검을 생활화함으로써 안전불감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윤영철 시민안전과장은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사소한 사고 등의 징후가 먼저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찾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겠다. 시민들께서도 안전문화 확산 및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상북도



경주시

# 2025년 APEC 정상회의

#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